

프랑스, 중소도시 되살리기 위한 'Action cœur de ville' 추진

<http://www.cohesion-territoires.gouv.fr/communique-de-presse-programme-action-coeur-de-ville-la-grande-transformation-pour-les-centres-villes-demarre>

<http://www.cget.gouv.fr/actualites/un-guide-pratique-et-methodologique-pour-accompagner-les-villes-moyennes>

<https://www.citylab.com/life/2018/05/france-action-coeur-de-ville-urbanization-small-cities/559349/>

프랑스가 지방 중소도시의 재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프랑스 국토부(Ministere de la Cohesion des territoires)는 향후 5년간 중소도시의 도심을 중심으로 50억 유로를 투자하는 계획 'Action cœur de ville'의 내용과 전국 222개 대상지를 발표하였다.

자크 메자르(Jacques Mézard) 국토부 장관은 "프랑스의 중소도시에서 인구의 23%가 삶을 영위하고 전체 고용의 26%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중소도시 도심의 활력은 도시 전역과 교외 지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계획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계획의 두 가지 목표는 선정된 대상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의 발전 거점으로서 도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장 등 지방 선출직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협의체 'Villes de France' 및 지역 경제 주체 등과 함께 이번 계획을 개발하였으며, 이번 계획을 통해 지자체의 업무와 사업 추진을 지원해 관련 이해 관계자들의 도심 재투자를 유도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해 ▲재건축·재정비를 통한 도심의 매력적인 정주환경의 회복 ▲균형 있는 경제·사업 개발 촉진 ▲접근성·이동성·연결성 개선 ▲도시 형태(urban form), 공공공간, 지역 유산 강조 ▲공공시설·서비스 접근 강화 등 다섯 가지 실행 방향을 가지고 계획을 추진한다고 전하였다.



Action cœur de ville의 대상지

자료: <http://www.cohesion-territoires.gouv.fr/communique-de-presse-programme-action-coeur-de-ville-la-grande-transformation-pour-les-centres-villes-demarre>